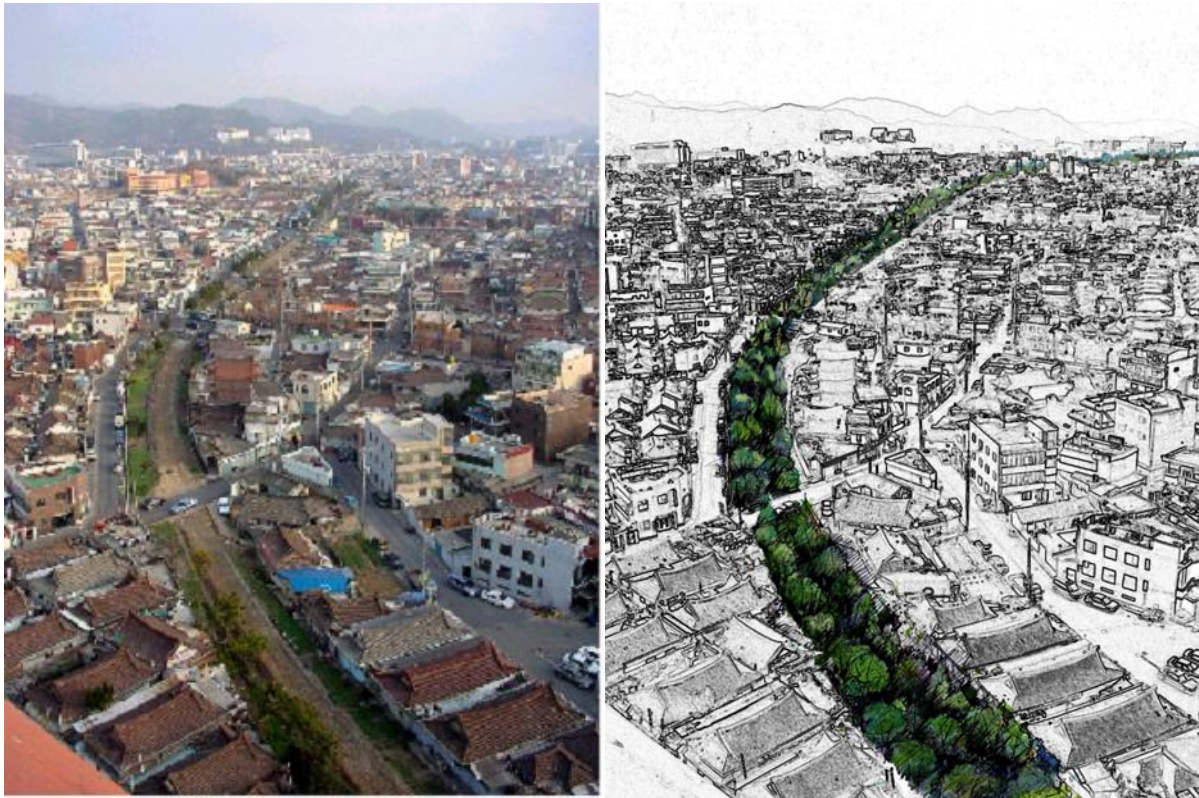


푸른길, 시민참여 생명공동체의 길

— 광주 폐선부지 푸른길조성사례 —



시경희(광주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사무국장)



1. 들어가며

■ 도시의 현실

- 행정 중심의 도시계획결정
- 자동차중심의 도시교통문화
- 도심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녹지공간 부족
- 도시공간활용 구상과정에서 객체가 된 시민들





2. 철도와 도시

-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사이를 가로지르는 경인철도 개설(국내 첫 철도)
- 기차는 근대문명을 전해주는 통로, 근대성과 진보성의 상징
- 철길을 따라 문물이 이동, 철도역을 중심으로 근대도시의 형성

■ 광주와 철도

- 1922년 7월 광주역~송정리간 철도가 개통
- 전통도시인 나주는 쇠퇴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도시형성
- 1922년 광주~담양간 철도 개통(1944년 태평양전쟁의 금속회수령에 의해 철길이 사라짐)
- 1930년 광주~여수간 철길이 개통(현 푸른길공원조성구간)

■ 광려선(광주~여수) 이용형태

- 광주~화순~보성~여수를 연결하는 철길을 통해, 통학, 통근하는 학생,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
- 보성, 여수의 해산물의 남광주시장 유통통로
- 농어촌 주민들의 도시이주의 통로







3. 도심철도 폐선의 과정

3-1. 주민과 광주시, 도심철도 이설을 주장하다.

- 광주역~효천역까지의 10.8Km구간에 29개소의 건널목으로 인해 교통체증
- 소음과 매연, 진동 등 생활환경의 피해
- 철도로 인한 인명 사고 증가
- 철도 양쪽 10m가 시설녹지로 묶여 재산권행사의 제한 및 주택의 증개축 불가
- 철도 내부로의 택지개발에서 철도 외부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짐.
- 도시의 확장에 따라 도시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됨.
- 철도주변 주민들은 1988년『철도이설추진위』결성, 철도이설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전개



3-2. 도심철도 이설 과정

- 1974년부터 광주시 행정과 시민들 도심철도 이설을 요구
- 1976년 철도이설관계관 회의개최,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 통합제안, 소요예산은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
- 1983년 도시기본계획변경, 광주시 교통부장관에게 철도이설 건의
- 1988년 도심철도 이설 확정. 노선, 예산등의 문제로 이설시기가 미뤄짐
- 1995년 도심철도 이설사업 착공(효천역~서광주역~송정역(11km))
- 광주도심철도이설 사업으로 도심내 10.8km의 폐선부지 발생(경전선의 일부)
- 이설비용 1100억원 광주시에서 마련. 철도청으로 부터 5만여평의 폐선부지 광주시로 무상 이관



4.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갈등과 대립

4.1 폐선부지의 녹도요구

- 폐선이 확정된 89년 이후, 예산의 문제로 이설사업이 지연
- 98년 광주시의 경전철활용방안에 대해 철도주변주민 300여명 녹도조성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
- 98년 환경운동연합, 광주시의회에서 폐선부지의 친환경적인 활용방안 및 공공활용을 주장하면서 폐선부지활용에 대한 지역담론 시작

4.2 광주시, 경전철활용방안을 모색

- 94년 광주시, 폐선부지 활용방안 용역 결과, 이설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폐선부지의 일부 매각, 도로, 주차장 활용
- 이설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자, 용역결과는 용역의 결과로만 존재,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활동이 진행되지 않음.
- 95년 이후 이설사업이 본격화되자, 98년 도시철도계획(지하철)과 연계하여 경전철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4-3. 폐선부지의 푸른길조성을 위한 민간운동

- 지역주민들과 민간단체, 『도심철도폐선부지 푸른길시민회』1999년 결성
- 폐선부지 활용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매월 1회이상, 총 30여 차례의 워크숍, 토론회, 포럼 등 개최)
- 지역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수렴 및 푸른길에 대한 합의
- 광주시의 푸른길조성결정을 요구하는 집회, 시장면담 등 진행
- 지역주민,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철도피해 및 희생을 위로하는 위령제 진행
- 폐선부지의 경전철 활용을 반대하는 빌더링, 자전거대행진 등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



4-4. 광주시, 기자회견을 통해 폐선부지 활용계획 발표

- 2000년 8월 폐선이 된 당시에도 광주시 폐선부지의 활용계획을 결정하지 못함.
- 그해 12월 시장기자회견을 통해 폐선부지의 녹도조성방침을 발표
-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만큼 지역내 현안문제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음.







5. 광주폐선부지 푸른길공원

5-1. 개요

- 구간: 광주역~남광주역~동성중간 7.9km(폭 8~15m) 105,613m²
(폐선부지 10.8km 중 동성중~효천역간 2.9km 제외 : 향후 경전철 부지로 활용 계획)
- 사업비 : 200여억원
- 사업기간 : 2002년 ~2008년

5-2. 조성원칙

0 녹지공간조성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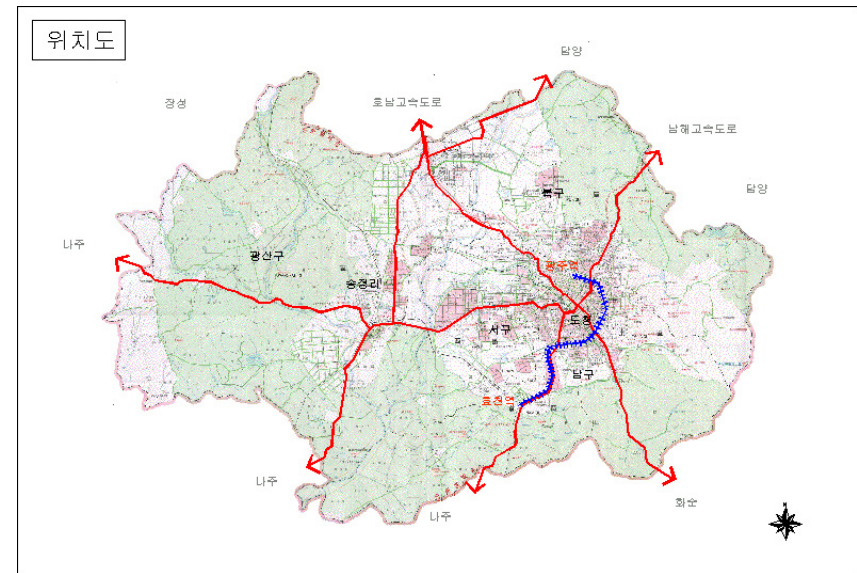
-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는 녹지공간
- 시민광장, 쌈지공원 조성

0 폭넓은 주민참여의 원칙

- 기본구상, 계획, 설계, 건설, 사후관리 등의 과정에 주민, 일반시민, 전문가, 행정, 의회 등의 다양한 집단의 참여

0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견인기능

- 재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이 폐선부지 주변에 위치함
- 폐선부지와 연계하여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연구 및 실행





광주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계획

핵(核)과 매듭에 의한 성장하는 녹지축 - "빛과 생명의 푸른길"

A구간: 미래의 푸른길

- 광주역 ~ 동명여중
- 광주역사 재개발과 미래광주를 상징

B구간: 생명의 푸른길

- 동명여중 ~ 남광주역
- 광주의 역사성, 민중항쟁의 생명성 상징

C구간: 빛의 푸른길

- 남광주역 ~ 백운광장
- 광주를 상징하는 첨단과학산업과 문화 예술의 고정 상징

D구간: 청소년문화의 푸른길

- 백운광장 ~ 광주대입구
- 광주시 초, 중, 고등학교 밀집지역
- 청소년을 위한 공간

E구간: 생태환경의 푸른길

- 광주대입구 ~ 효천역
- 미개발지역과 풍부한 자연녹지지역

광주역

핵1; 광주역주변

A

핵2; 산수교주변

B

남광주역

핵3; 조선대앞

핵4; 장산초교앞

백운광장

D

핵-1



핵-2



핵-3



효천역

매듭





6. 푸른길, 시민이 함께 만든다.

6.1 푸른길운동본부의 결성

- 시민참여 도시계획의 새로운 모델인 푸른길의 의미를 높임
- 폐선부지 푸른길결정 이후 시민참여의 푸른길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결성
- 경전철반대운동을 전개한 도심철도이설부지 푸른길가꾸기시민회의의 맥을 이음
- 행정과의 대립이 아닌 파트너쉽을 전제로 푸른길조성활동을 펼치기 위함.

■ 구성

- 민간단체 : 환경단체,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30여개단체 참여
- 지역주민 : 폐선부지 인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단체 참여
- 전문가 : 도시계획, 조경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 결성일 : 2002년 3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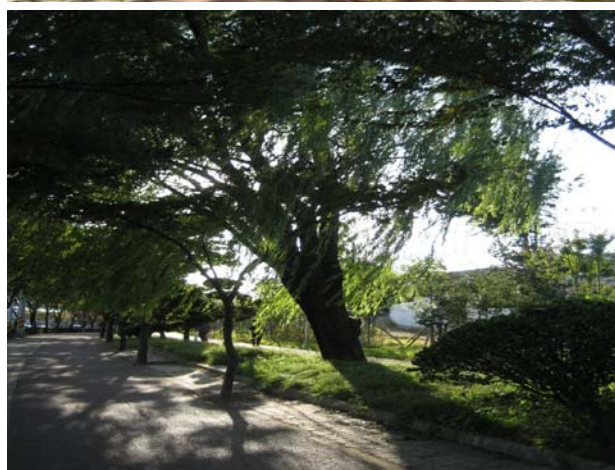




6-2. 시행정과 파트너쉽구축을 통한 거버넌스구축

- 푸른길공원조성의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푸른길공원조성자문위원회』구성, 민간단체,전문가가 상시적으로 협의
- 푸른길공원조성의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 협의
- 운동본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시민참여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시민참여구간 설정과 시민참여를 위한 기반조성







6-3. 시민의 이름으로 숲이 조성되다.

■ 조성하는 과정에 시민참여

- 푸른길100만그루헌수운동을 통해 개인 1만원부터 시민, 단체, 기업에서 푸른길 조성에 참여.
- 가족의 나무, 기업과 단체의 숲조성
- 녹색기부문화 활성화
- 백만개의 이야기가 있는 푸른길(참여에 따른 다양한 참여동기, 참여이후의 관리 이야기 진행)

■ 시민이 관리하는 푸른길공원

- 조성이후, 행정과 함께 주민이 푸른길공원관리
- 도시숲 푸른길은 사업조성으로 완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민참여관리를 통해 숲이 완성되어감.
-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주민들의 자율적인 관리프로그램 운영

足利三代義満

관주 푸른길 시민참여 매뉴얼 1

함께 만드는 도시숲길 푸른길

광주역 ~ 조선대앞

- 위치 및 규모: 미정
 - 참여시기: 2005년 겨울부터
- 남광주역-백운광장**
- 위치: 미래아동병원 건너편
 - 규모: 길이 80m×폭 3~6m
 - 참여 종류: 나무, 벤치, 시설
기반공헌, 참여의 벽
 - 참여시기: 2005년 2월부터

남광주역 ~ 백은광장

- 위치 : 미래아동병원 건너편
- 규모 : 길이 80m×폭 3~6m
- 참여 종류 : 나무, 벤치, 사설물, 기념공원, 참여의 벽
- 참여시기 : 2005년 2월부터

백운광장 - 동성중

- 위치: 진월동 청산교회~백마초~한신아파트
- 규모: 길이 880m×폭 16~20m
- 참여의 종류: 나무, 벤치, 기념 숲, 바닥타일 및 바닥문양 만들기
- 참여시기 2005년 6월부터

▶ 7월 2주

광주푸른길가기운동본부
TEL. 02514-2444 FAX. 02525-4294
http://www.greenways.or.kr

주요행사: 3월 학구 북행 236-2 (학생회원 3명)
4월 푸른길가기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식
5월 푸른길가기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식
6월 푸른길가기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식
7월 푸른길가기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식
8월 푸른길가기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식
9월 푸른길가기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식
10월 푸른길가기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식
11월 푸른길가기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식
12월 푸른길가기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식

● 日本では、日本酒の消費量が年々減少傾向にある。その一方で、洋酒の消費量は増加傾向にある。この傾向は、日本酒の消費量が減少傾向にある一方で、洋酒の消費量は増加傾向にあるという。これは、日本酒の消費量が減少傾向にある一方で、洋酒の消費量は増加傾向にあるという。

길에 대한 시민들의 열원을
그러늘어 참여의 벽으로 만듭니다.

◆ 먼저, 가족 화살(대) 가족이 친구, 단체가 될!
호랑이가 그렸을 그림

참여 1 내 나무를 심자!
푸른길의 역사를 안고 성장하는 내 나무
종아리는 나무를 심어보려

- ▶ **기타 큰 상품의 나무물**
 물대나무(나무 2m) 150,000원, 참나무(나무 3.5m) 250,000원
 물대나무(나무 2m) 150,000원, 참나무(나무 3.5m) 65,000원
- ▶ **기타 크고 나뭇잎이 적은 나무물**
 참나무(나무 1m) 120,000원, 떡갈나무(나무 4m) 200,000원
 참나무(나무 1.5m) 100,000원, 참나무(나무 2.5m) 210,000원
 참나무(나무 3.5m) 200,000원
- ▶ **기타 크고 꽃피는 나무물**
 벚꽃나무(나무 3m) 210,000원, 히라나무(나무 3.5m) 200,000원
 자작나무(나무 2.5m) 80,000원, 벚꽃나무(나무 3.5m) 100,000원
 산딸나무(나무 4.0m) 200,000원, 노랑나무(나무 2.5m) 100,000원
- ▶ **기타 작은 나무물**
 남천나무 1m 10,000원, 히라나무 2.5m 40,000원 20,000원
 복수나무 60cm 20,000원, 프사나무 60cm 60,000원 5,000원
 갈참나무 1m 15,000원
- ▶ **꽃물품**
 구슬꽃, 꽃잎의 모자, 달빛모자, 수줍은, 영성, 모자, 모자
 꽃잎모자, 영성모자, 달빛모자, 영성모자, 영성모자, 영성모자

4 벤치와 싱커

참여 푸른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손 기임, 단체, 동창회의 이용을

3 기념정원 참여 개

참여자의 뜻이 설계에 반영됩니다.

◆ 기념품점 1층 : 500,000원 1층(1층) 2층(2층) 3층(3층)

● **풍구광장**



4월에 꽃이 피며, 7월에 열매
가 익는다. 과수용.

유순남.정영환.정승욱.정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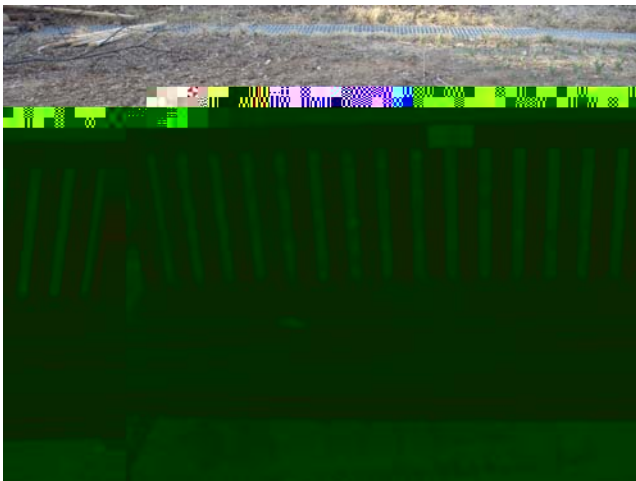


조선대구간 지역의 이해와 설계방향

북동신탁4층 회의실 / (사)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7. 푸른길운동을 통한 변화

- 도시공동체, 마을공동체형성
- 생태도시- 녹지공간확보로 도시의 환경성회복
-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안전한 통학로 및 산책로 조성
- 주민자치의식 형성





8. 마치며

- 푸른길가꾸기운동은 진행형...
- 교차로 등 푸른길단절공간을 녹지로 연결
- 보행, 자전거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 폐선부지 주변 녹지공간 확대
- 민간참여의 체계적인 녹지관리 시스템 구축
- 푸른길공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도시속 곳곳에 새로운 푸른길을 만들고 연결
해나가는 녹지확대운동으로 승화
- 시민이 행정과 파트너쉽을 넘어, 거버넌스체계 구축
-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